

“ 하늘전쟁 ”

■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다. 그 하늘전쟁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원초전인지, 아니면 세상 끝에 일어날 종말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전자나 후자가 아니라면 언제 일어날 전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계시록 12:11에 있다. 여러 형제들이 사탄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로 사탄을 이긴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사탄을 이기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 구속사의 과정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였다.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 피에 근거한 사탄과의 싸움에 미가엘이 그리스도의 대항자로 등장한 것뿐이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서,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다. 계시록은 3년 반 동안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하늘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과 싸워 일어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인가?
 하늘전쟁의 실패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그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서 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 사탄은 유다를 유혹했고, 베드로를 배신자로 만들었으며, 박해와 유혹을 무기삼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다.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눅 10:18) ‘공중 권세 잡은 자’란 하늘에서 쫓겨났다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보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참소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죄죄함이 없느니라”(롬 8:1) 하셨다.

마귀는 전체가 거짓
 하나님이 친히 부리시는 미가엘이 땅에 쫓겨난 마귀 붉은 용과 싸운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케 하고 그들을 죽게 했으므로, 피를 흘리는 자 즉 처음부터 살인자다. 피를 흘리는 자라는 의미에서 붉은 용이라 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난다. 마귀 자체가 거짓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선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진리 전체를 반역한 것이다. 따라서 마귀는 전체가 다 거짓이다. 다른 천사들까지도 그 꼬리로 꼬여 타락시켜 군대를 만들었다.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싸움
 세상적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전쟁은 언쟁을 하는 사상전을 뜻한다. 그러나 마귀는 그 속이는 세계가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비진리의 참상과 거짓의 흑암은 빛 앞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마귀는 자신이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한다. 그러니 오래 견디지 못한다.

사탄은 여인(교회)을 공격하나 신앙고백과 기도의 무기로 대적하라
 용을 하나님께 고소했으나, 마귀는 패배했고 진리가 승리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드니라” 했다.(약 2:19)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말할 때 귀신 마귀는 떨고 물러간다. 성도들이 신앙고백을 진실하게 하면 마귀는 쫓겨 간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유 1:9)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변론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진실한 기도와 신앙고백이 영적전쟁의 참되고 힘 있는 무기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쫓겨 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거짓된 사탄과 싸워 “내가 이기었노라”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교회)가 되자.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미크론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기에 안심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부서실 개별부서모임에서도 간식 등의 취식이나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일체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만 앉아 주시고, 가급적 넓은 간격을 유지하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학교는 대면예배를 드리고, 초등부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21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네가 무엇을 보느냐? ”

■ 렘 24:1-7
 야곱의 아내 라헬은 난산 끝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나’라 부르고 세상을 떠납니다. ‘베노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나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삼상 4장에서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전쟁 패배 소식을 들은 후 갑자기 해산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남편은 전사했으며 언약궤는 탈취 당했다는 소식에 그는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이가봇’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은 새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역사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1.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무화과를 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 소산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 대답한 것은 ‘이 참담한 역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예레미야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렘 22:8,9) 우상숭배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함이 망국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할 뿐이니라.’(렘 22:17)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정의와 공정의 상실 그리고 궁핍과 사랑이 멈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 희망을 보라
 나라는 없어졌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지도자들이 인질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희망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의 땅으로 끌려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요’라고 약속하십니다.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애급 노선을 강화하고 만약의 경우 애급으로 망명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해방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징계 뒤에 따라올 회복의 희망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다가오는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셨습니다. 바울은 고후 4:16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결사량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직시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련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의 현실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야 하였습니다.

3.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레미야는 ‘희망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가짜 안전 소식을 전하는 거짓 예언에 휘둘리지 말고, 음흉한 욕망을 숨긴 강대국에 운명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희망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7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여 제가 저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약속된 희망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고백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안용근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92: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시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8(3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렘 24: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네가 무엇을 보느냐?”...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310(410)...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8:4-5 인 도 자
 찬 송 28(28) 다 함 께
 기 도 감규원 집사
 찬 송 257(189) 다 함 께
 성 경 행 15:6-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 설 교 자

* 찬 송 340(366)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화옥 권사 II부: 김정희12 권사
 성 경 행 15:22-4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은혜와 시련”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영연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조동수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 임

1. 장학회 위원 회의 / 13일(주일) 오후 1시 8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90명	475명	2,165명	446명	2,023명

🌳 난세를 사는 슬기

다윗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사랑을 받은 존귀한 인물이다.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분이 높아져도 처신은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신 그는 낮고 천한 목동이었다. 그러나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타도하고 구국공신이 되어 사울 왕의 사위감으로 발탁되었을 때 그는 겸손히 사양을 했다. 그렇다. 사람이 출세 좀 했다고 자존망대하다가는 삼천척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법이다.

다윗은 작은 은혜도 크게 받을 줄 아는 슬기를 가진 이다. 왕의 자리가 양위된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절반을 떼어준 것도 아니건만 자기를 죽이려는 울무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감지덕지 내려준 부마의 자리를 받았다.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이 오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오며 햇빛에 감사하면 일곱 날의 빛이 올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겸손과 감사 그것이 난세를 사는 슬기다.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거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호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렘 24:5)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